상쾌한 바람이 창가로 스며들고,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가 귀를 간질이는 아침.

엘가시아 가문의 아침은 오늘도 바쁘다.

기사들은 이른 새벽 일어나 구보를 하고, 하녀는 마당을 쓸며, 요리사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이곳, 엘가시아의 자제 중 한 명인 오르하 엘가시아를 모시게 된 나는.

똑똑.

—왔어요?

“예.”

—그럼 아침 식사 가져와요. 디저트는 달달한 케이크로 부탁하고요.

오늘도 아가씨에게 부려 먹히고 있었다.

*

“...오늘은 뭐라시랍니까.”

“케이크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방으로 내려온 나는 주방장에게 오르하의 방으로 가져갈 아침 식사와 케이크를 부탁했다.

금방 다시 나타난 주방장은 넓

직한 판에 식사들을 올려 내게 건네주었다.

"힘내십시오. 기사님."

"...예."

판을 들고 그녀의 방으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문 가까이로 다가오는 일정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은하수를 품은 듯 찰랑이는 은빛 머리칼이 일찍이 씻었는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다.

그녀는 자수정을 닮은 두 눈으로 식사를 흘낏 바라보고서 작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아가씨.”

“음? 왜요.”

태연스럽게 대꾸하는 그녀의 표정은 연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순수했다.

나는 입을 열려다가, 한숨을 내뱉으며 식사를 건네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식사를 건네받은 오르하는 케이크를 보며 입맛을 다셨다.

방으로 들어가던 그녀가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며 툭 내뱉었다.

“문 닫아요.”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는 성의라고는 1도 담겨있지 않았다.

괜히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서, 벽에 기댄 채 허리춤의 검을 만지작거렸다.

'시간 낭비 밖에 더 안 되는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호위 기사가 아니었다.

실제로도 하는 일만 보면 사실상 하인에 가까웠다.

하루 세끼 식사 전부 가져다주지.

서재에서 원하는 책 가져다주지.

가문의 부지 밖 가게에서 간식 사다주지.

벌써 일주일이다. 내가 호위로 들어오게 된 첫 날부터 이 꼴이었단 말이다.

그냥 시키는 일이나 대신 해주고 있는 게 정말 호위로서의 역할이란 말인가.

아니, 그보다 애초에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호위를 붙

이는 게 맞단 말인가.

막상 생각을 해보니 더더욱 어이가 없다.

나라고 귀족 자식 뒷바라지 하고 싶어서 호위로 들어온 게 아니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호위'라는 위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후우..."

당장에라도 문을 열어젖히고 그 잘난 백옥 같은 얼굴에 따귀 자국을 남겨주고 싶지만.

그런 짓을 저질렀다간 해고는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기회를 찾기 힘들 것이다.

—아르펜?

"예, 아가씨.“

-문 앞에 뒀으니까 가져가.

15분 쯤 지나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방문을 천천히 열었다.

식사를 마친 그릇들이 올라와 있는 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방 안을 슬쩍 흘겨보았다.

창문을 열어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커튼의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다.

고귀한 귀족의 유전자라 그런가, 확실히 미모만큼은 여태 봐왔던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다.

'...저렇게만 보면 정상인인데.'

어째서 인성은 왜 이리 개차반인 걸까.

그렇게 주방에 식사를 다시 되돌려놓고 올라온 나는, 어째서인지

문 앞에 놓인 또 다른 그릇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릇 위에는 포크와 작은 쪽지가 놓여있었는데, 쪽지에 적힌 글은 이러했다.

[디저트 그릇을 깜빡했네요.]

검으로 문을 갈가리 부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

"...후우."

오늘도 이리저리 부려 먹히고 침대에 누운 나는 눈을 감은 채 기억을 회상했다.

왜 내가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걸까.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은신처로 돌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하고 있었던 때.

-루덴, 방에 있어?

"왜."

-들어가서 말해줄게.

벽면에 세공된 발광석들이 달려있는 작은 방.

방에 들어온 아스카는 책상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내가 무슨 정보를 얻어왔게."

"또 시덥잖은 용병일이겠지."

"아니야."

아스카는 뒷세계에서 활동하는 제네시스라는 조직에서 수장을 맡고 있었다.

음지에서 일을 하는 그는 이따금씩 내게 여러 정보를 가져다주곤 했다.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를 향해 돌아앉았다.

"그럼 뭔데."

"황실에 접촉할 방법을 찾아냈어."

"...뭐?“

황실. 그 한 단어에 내 전신의 신경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아스카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은 채 말을 이었다.

"엘가시아 알지?"

"...황실과 관계가 깊은 기사 가문이지."

"그래. 그곳에서 비밀리에 호위를 구하고 있더라고."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나는 흥분하지 않고 여느 때보다 차갑게 머리를 식혔다.

빛바랜 공책을 책상 저 멀리 치

워내며 아스카에게 물었다.

"접선 위치는?"

아스카는 대답 대신 작은 은패 하나를 내게 튕겼다.

은패에는 엘가시아의 가문 문양이 찍혀있었다.

"이게 뭔데."

"참가 자격. 얻어오느라고 린이 고생 좀 했다."

"...그런가."

은패를 꽈악 움켜쥐었다. 수년을 기다렸던 기회가 이제야 온 것이다.

"날짜는 상관없이 레카르튀아의 엘가시아 가문 별장으로 가면 돼."

아스카는 씨익 웃어보였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정보야."

"...고맙다."

"별말씀을."

그 후 정확히 이틀이 지나 레카르튀아에 도착한 나는 곧바로 별장을 찾아갔다.

"음, 자네의 이름은?"

엘가시아 가문의 위상에 어울리는 기세. 가주 카제온은 대륙 5대 강자의 위명에 걸맞는 이였다.

감히 끝을 엿볼 수 없는 힘의 깊이에 나는 작게 침음했다.

이제부터는 사자의 입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멈출 수는 없었다.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아득바득 살아왔던 인생이었으니까.

"아르펜이라고 합니다."

“남부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싸라기눈이 내리는 늦겨울. 흘러

나오는 입김이 시야를 잠시 가렸다가 사라진다.

카제온은 별장의 테라스에서 나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군말 없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대련장의 바깥쪽에 서 있던 기사 하나가 걸어와 나와 마주 섰다.

"죽이지 않는다는 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나는 망설임 없이 검을 뽑았다.

'마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검가의 시험에 임하는 것이니, 마법은 자제할 생각이었다.

오른쪽 눈이 옅지만 선명한 푸른빛을 발한다.

반쪽의 시야가 뒤집어지며 세상

의 이면(裏面)을 드러냈다.

그 세상 속에서 눈송이는 그저 눈송이가 아니었으며,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시작하게.“

기사의 심장이 위치한 부근에서 마력 덩어리가 꿈틀거리며 전신으로 실처럼 뻗어나갔다.

‘...좋은 마력 운용이다.’

역시 엘가시아의 기사인가.

결코 얕볼 상대는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온 몸의 회로를 내달린 마력이 실타래처럼 뻗어나가 검신을 휘감았다.

끓어오르는 마력이 실체화하여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이곳에서 평소처럼 힘을 숨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뛰어나다는 사실을 그에게 각인시킨다.

지면을 박차자, 그 충격에 지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진다.

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감각으로 받아들여, 흐름을 향해 나아간다.

상대와 나를 가로지르는 이 공간 자체를 뛰어넘듯, 짓밟았다.

챙!

청명한 금속음이 일대를 진동시킨다.

기사는 순간의 순발력으로 검을 지면에 박아 멀리 튕겨나가지 않았다.

그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방금의 움직임은...”

내 검이 푸른 실선을 그리며 허공을 예리하게 갈랐다.

기사의 검은 허무하리만치 쉽게 허공으로 떠올랐다.

검을 위로 쳐올린 다음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검격.

검무를 추듯 물 흐르는 검격이 푸른빛으로 기사의 시야를 집어삼켰다.

잠시 후 기사는 두 손을 들었다.

매섭게 날아든 검 끝은 정확히 그의 목젖에 닿아있었다.

"...졌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그의 한 마디에 눈이 다시 원래 색을 되찾는다.

검을 회수한 나는 고개를 돌려 카제온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대련의 종료가 아니었다.

“알렌.”

“예.”

“자네가 상대해보도록.”

그의 옆에 서 있던 노집사가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부드럽게 착지했다.

정갈한 움직임으로 대련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그는 허공에서 튀어나온 세검을 낚아챘다.

“아르펜.”

“...예.”

“한 번은 더 할 수 있겠지.”

하아, 입김이 새어나온다.

입김이 공간에 스며들 듯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 푸른 눈동자가 번뜩였다.

“...물론입니다.”

일렁이듯 다시금 점화해, 타오르는 마력.

검집에서 빠져나온 검에 푸른 광채가 깃든다.

노인의 검을 바라보던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굉장하군.'

검을 촘촘히 감싸, 예리하게 벼려진 잿빛 검기.

나이에 맞지 않은 경지의 드높음이었다.

세상의 이면 속에서, 카제온 다음으로 존재감을 내뿜는 그의 검끝이 살짝 흔들린다.

다음 순간, 흐릿한 잔상만을 남기고 단숨에 목전까지 도달한 검.

하지만 눈을 통해 흐름을 보고 있던 내게 회피는 어렵지 않았다.

빗나간 찌르기는 엄청난 속도로 횡 베기로 탈바꿈한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검격을 피해낸 나는 뒤로 도약해 잠시 자세를 재정비했다.

점차 머리가 아파온다. 눈의 능력 때문이었다.

왼발을 축으로 지면을 짓밟고 앞으로 가속했다.

허공을 내달리는 푸른 실선 위

로 불길처럼 마력이 일렁인다.

노집사는 얼굴을 굳히며 마력을 끌어올렸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른쪽 눈에 한해 능력을 완전히 풀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흐름과, 마력, 그리고 빛의 입자들이.

나는 그 안에서 흐름과 마력이

어긋나고 있는 지점을 보았고.

내 검은 초승달을 그리며 그 지점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집사의 검이 지면을 나뒹굴었다.

짧은 침묵을 깨트린 건 노집사가 내뱉은 감탄이었다.

“...대단하군.”

“별말씀을.”

“좋은 대련이었소. 내 패배오.”

노집사는 악수를 청했고, 나는 그가 내민 손을 맞잡았다.

지켜보고 있던 카제온 또한 노인의 패배를 인정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이겼군, 아르펜."

"...감사합니다."

"멋진 승부를 보여주었네. 대련이라고는 하나 집사장을 상대로 그 정도나 선방해보이다니."

나는 머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참아내며 검을 회수했다.

카제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아르하칸의 내 저택으로 찾아와 듣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엘가시아 저택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나

는.

"...당신이 누군데 내 호위라는 거죠? 저리 꺼지도록 하세요."

그 한 마디로 앞으로의 가시밭길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